

# 코로나 위기극복 '한뜻'

## 익산시·시의회, 긴급 추경 편성 피해지원 공감대

익산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피해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24일 정현을 시장과 조규대 시의장, 각 국소단체장,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1차 추경안을 마

련해 4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참석한 시의원들은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지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안정화, 감염 고위험군 모니터링, 취약계층 생계지원까지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추경예산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정부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예산집

행과 제도시행에 있어 속도감이 중요하며 시의회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민들도 괴로움이 커졌다"며 "익산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한 시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집행하고 추후 의회 승인 받도록 하여 지역사회 안정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 "사회적 거리운동 적극 동참을"

### 해외입국자·20대 실천 당부

군산시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관련해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입국 예정인 사람이나 20대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입국해 활동중인 시민들에게 보건소에 연락하고 자가격리 수준의 외출자제를 당부했다. 또 해외에

서 입국예정인 가족이 있는 시민들에게도 보건소에 미리 연락해줄 것을 강조했다.

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다는 자가 차량을 이용해 동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이동시에는 접촉자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의 경우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 20대 확진자의 비중이 전체연령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노출로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20대도 코로나19에 안전하지 않고 입원치료를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발병률 자료도 있어 누구든지 코로나19에 주의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4월5일까지 군산시가 적극적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이 함께 동참해 줘야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해외유입과 20대와 관련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함께 적극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의료원·대구 경북지역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온정나누기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윤)은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24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군산의료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번 위문은 군공노가 코로나19 관련 군산의료원에 입원한 대구입소자와 의료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군산시의 지매결연 도시인 대구광역시 동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군산의료원과 전공노 동구지부에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김상윤 위원장은 "대구시 동구의 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24일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군산의료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군산과 대구 동구 모두 더 이상의 확진

자 없이 하루빨리 현 상황이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직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찾아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위기극복 일손 돕기

### 학교급식지원센터 찾아 라벨·박스 작업 '구슬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직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찾아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원봉사 인원 투입 등 인력수급도 불안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찾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했다.

먹거리정책과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해 온라인판매를 위한 라벨 및 박스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온라인판매는 전국 친환경연합사업단과 연계 인터넷쇼핑몰 11번가를 통

해 주문 판매하는 것으로 1,700여 개를 시작으로 학교 개학 시까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제삼원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갑작스런 온라인 판매 물량 급증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먹거리정책과 직원들의 일손 지원으로 온라인 판매 작업 걱정을 조금 덜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동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농기센터,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는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사과, 배 재배 농업인에게 동제화합물 등 적용약제를 이용해 적기에 철저히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따뜻한 겨울 날씨로 사과, 배 과수원의 개화시기가 최대 9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방제가 필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한그루라도 걸리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88농가 131.5ha에서 329억원의 폐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인 군산시에서는 화상병의 원천봉쇄를 위해 지난 2월말부터 사과, 배 재배농가를 개별

방문해 일대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26농가 15.6ha에 방제약제를 전량 무상 공급한 바 있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반드시 사전 방제해야 효과가 있으며 전정기위, 예초기 등 농작업 도구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고 3월말까지 방제해야 한다"며 "사전방제를 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되므로 공급 받은 약제로 반드시 사전방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454-5313)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지역 소식통

### 군산 금암동 폐철도 부지 도시재생 숲으로 재탄생

군산시는 장기간 방치됐던 금암동 한화공장 및 폐철도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숲으로 재탄생시켰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금암동 신영시장 인근에 방치된 한화공장 및 폐철도 부지 8,754㎡에 22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숲을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지원으로 시행한 본 사업은 가든존, 피크닉존, 포레스트존, 다이나믹존 등 테마별로 어울리는 대왕참나무 외 15종 9만여본의 수목을 식재해 숲을 조성하고, 파고라, 아이티이블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활력을 잃었던 구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원도심 녹색인프라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민이 기증한 8천4백만 원 상당의 적피배롱나무, 황금곰솔 등 특이수목을 산책로변에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폐철도변 길에는 꽃무투 등 16여종의 계절별로 다양하게 꽃이피는 자생화를 식재해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 요양병원 긴급점검

익산시 보건소는 최근 대구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령의 노인 입원 환자가 많은 관내 요양병원 9개소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발열 기침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의 업무 배제 여부와 방문(면회)객 제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 사항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마다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해 종사자와 환자를 비롯해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매일 확인 기록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 배제(출근 금지), 환자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